

생명이 정각을 다루는 위기일탈의 시각에 서슴없이 한몸을 내대어 불발탄을 순복시키고 최후를 마친 영웅한 사람들의 미거는 지금도 그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있다.

지난 3월 황해남도인민보 안국 보안원들이 지난 세기 조국해방전쟁때 미군비행기에 의해 투하돼 여직객 땅속에 묻혀있은 불발식탄한을 제거해 인민의 생명과 도시의 안전을 지킨 고귀한 위훈에 대한 이야기이다. 각일 각 생사를 가르는 위급한 정황에서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고 처자와 가정보다도 먼저 사회와 집단을 생각하며 한목숨 기꺼이 바친 폭발물 처리대원들의 소행은 인덕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온 사회에 차넘치는 이 나라 대가경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약육강식이 사회의 생리로 되는 사회, 사람의 인격가치가 금전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위선과 허영, 부익부와 빈익빈이 만연하는 제도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리상사회의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 는 조선을 방문했던 미국 그리스도교지도자 빌리 그라함

숭고한 인덕이 낳은 리상사회

목사도 《조선에 한해서는 설교가 불필요하다. 이 나라는 성서의 교리들이 이미 실현되어 예수가 꿈꾼 리상사회다. 예멘동산이 아니라 주체의 락원이 지구촌에 태어난 민중복락의 동산이다.》라고 감복을 토로한바있다. 명백하건대 일신의 부귀와 향락을 추구하고 오직 돈이면 그만인 사회나 제도에하여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친다는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지휘관이나 병사들을 위해 터지는 수류탄도 한몸으로 막아나서고 강물에 빠진 자기 딸을 잃으면서도 남의 딸을 구원하고 총각처녀들이 영예군인의 반려자가 되고 부모없는 아이들과 부양자가 없는 로인들을 친자식, 친부모처럼 돌보며 사는 것과 같은 소행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인 생활기풍이 지배하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미거인것이다.

무릇 인덕이 없는 사회는 물이 없는 사막과 같다고 일

렀다. 물없는 황막한 사막에서 꽃이 필수 없는것처럼 인덕없는 사회에서 인간의 미덕이나 화목이 있을수 없다. 예로부터 인간은 덕망 높은 인물을 성인으로 존경하고 따랐고 인덕이 지배하는 사회를 갈망했다.

오늘 우리 조국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향유하는것은 령도자의 인덕정치가 낳은 현실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인덕의 최고화신이었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따듯이 보살피신 삶의 은인이고 보호자이시였으며 어버이이시였다.

조개잡이중 뜻밖의 밀물을 만나 얼음장을 타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서해로구의 한 처녀를 위해 하늘, 땅, 바다에서 구조작전을 펴도록 하시어 기어이 구원하도록 하신 사설,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던 한 일군이 운명했다는 비보를 접하신 그때 현지지도의 길에서 되돌아오시며 고인파 영결하신 이야기, 강원도 산간벽촌의 한 가정에서 갓 태어난 세쌍둥이의 생명이 사경에서 헤매고있을 때 비행기와 강력한 의료진을 보내도록 하시어 평양상선원으로 후송하여 기어이 살려내도록 하신 이야기 등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피신 장군님의 인덕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귀한 자식 배고픔세라 얼굴에 그늘이 질새라 신상에 병이 들새라 원심을 기울이며 정을 다 기울이는 친부모처럼 장군님께 있어서 온 나라 인민은 자신의 살붙이였고 천만자식과도 같았다.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는 령도자의 숭고한 덕망과 인덕정치는 온 나라에 현실로 구현되어 전체 인민이 아름다운 룰리도덕관계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고락을 같이하는 혼연일체의 대화를 이루게 된것이다. 경사전 경도를 따라 촌살같이 내려오는 광차밀에 비호갈

이 몸을 날려 동지들과 설비들을 살려냈으며 얼음구멍에 빠진 아이들을 구원했고 천혈육의 눈에서 구결막을 떼내 앞모보는 환자에게 광명을 주는 아름다운 소행은 너 아니면 나라는 천박하고 리기적인 인간들이 생존경쟁을 하는 사회나 제도에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꿈같은 현실인것이다.

공화국의 이러한 현실을 체험한 흥정자재미동로는 《그와 같은 행위는 순간적인 충동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의 행위이며 사랑의 열매이다.》라고 방문소감을 피력했다. 우크라이나의 한 학계 인사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절대시하는 사람들로서는 초등수학만을 배운 학생들이 고등수학을 깨치기 힘든것처럼 조선인민의 혈연적관계에 대해 리해하기 힘들것이다, 정의와 진리, 사랑을 구현하여 인민들을 광명으로 이끌어주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운명을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령도자를

어버이로 믿고 따르며 혼연일체 되는데는 당연한것이라고 자기의 견해와 공감을 표시했다.

위인의 인덕은 인민에 대한 사랑이며 인덕의 높이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높이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은 그 열도와 헌신성에 있어서 가장 뜨겁고 웅심깊고 고결한 사랑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인덕정치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 편의를 최우선, 절대치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에 의해 이 땅우에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그이께서는 인덕의 정치를 베푸시어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도록 하시였다.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한몸을 기꺼이 바친 합동협동농장의 리창진동명의 희생적인 헌신과 같은 소행은 김정은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미덕인것이다.

자본주의가 흥배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고도로 발양시켜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건설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땅처럼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결심이고 이 나라 인민의 지향과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 설

인민사랑의 창조물

최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노동자합숙이 새로 건설되였다.

합숙생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게,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도모할수 있게 꾸려진 침실과 목욕탕, 연회장같은 식사실과 현대적이면서도 최신식설비들이 갖추어진 주방, 합숙생들이 휴식과 오락, 체육을 할수 있게 꾸린 공원을 비롯하여 합숙의 그 어느것이 나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손색없이 꾸려졌다.

합숙이라고 하기에 는 너무도 황홀하고 완벽하여 궁전, 호텔이라고 부르며 기쁨을 금치 못하는 공장 노동자들도.

지난해 10월이었다. 어느날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생산량을 끊임없이 늘이자면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책임지고 공장에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시였다.

그렇시고는 친히 부지도 정해주시고 건설량도 과감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지난 4월말 현지를 다시 찾으신 그이께서는 노동자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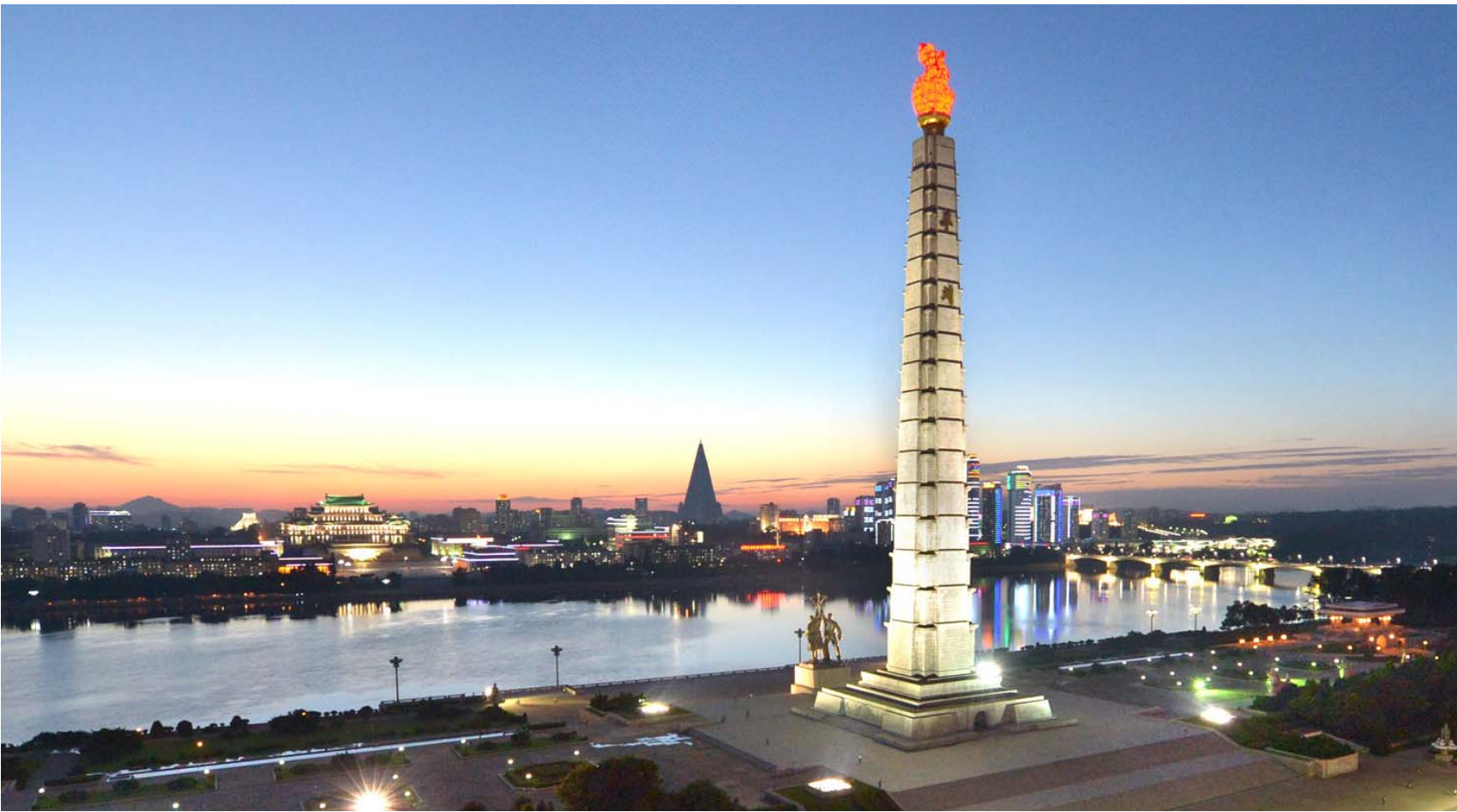
숙이 정말 멋있다고, 먼지만 날리던 곳이 천지개벽되고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침실에 낮은 침대를 놓아주며 벽장을 비롯한 가구들을 잘 만들어 출출대 대하여서와 상품보장과 도서관의 학습조건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세상에는 극소수 부유계층이 향락을 누리는 궁전과 호텔은 많아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방직공들에게 차려진 합숙처럼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게 모든것이 잘 꾸려진 호텔을 방불케 하는것과 같은 노동자합숙은 없다.

지금 그곳 합숙생들은 《천짜는 평범한 우리 녀성노동자들에게 이런 황홀한 궁전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잊지 않고 하루를 백날, 천날로 주름잡아 더 많은 천을 짜고 또 짜겠다.》며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고있다.

어제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는 과학자들에게 훌륭하게 꾸려진 새 아파트구, 새 집들이 차례졌다면 오늘은 또 천짜는 녀성노동자들에게 궁전같은 합숙이 차례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령도자의 인민사랑의 정치와 인민을 위한 국가적정책과 혜택이 얼마나 크고 한량이 없는가를 다시금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봉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인 민족성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이다.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애는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깊이 간직하고 일상생활에서 민족적인것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데로부터 생긴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미풍양속을 고수하고 적극 살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결코 흐려지거나 달라질수 없는것이 민족적전통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은 설령결과 같은 명절놀이에서뿐아니라 로동생활, 문화생활, 의식주생활, 도덕생활 등에서 우수하고 훌륭한 민족전통을 창조하였다고,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대를 이어오면서 지켜온 민족전통에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례의 도덕, 조선사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우리 민족의 고유한 기호와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을 버리면 민족을 잃게 된다고 하시였다.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는다! 이렇듯 숭고하고 뜨거운 민족애를 지니신 그이이시였기에 언제인가는 상식까지 들려주시며 조국강산에 열매를 맺는 나무 한 그루에도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아

기때문에 《문》이요, 나무가 단단하여 화살촉을 만드는네 쓰이니 《무》이고, 열매의 결과 속이 다같이 붉어안팎이 다르지 않으니 《충》이며, 이가 없는 로인들도 쉽게 자실수 있으니 《효》이고, 서리가 내려 락엽이 저도 열매만은 끝까지 달려있으니 절개 또한 굳다고 하여 《절》이다.

이 빛내어나가도록 하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령도의 손길은 사람들과 줄거 마시는 막걸리와 같은 일상음료와 널리 재배되고 유용하게 쓰이는 수수세미오이와 같은 작물 하나에도 비껴있으며 새집을 이를 한 예술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시시고 남기신 성냥 하나에까지 속속들이 깃들여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의 향취

름다운 생활문화풍속이 비껴있다는것을 대대손손 잊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감이란 참 깨끗하고 맛있는 과일이라고,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감나무를 가리켜 《문무초효절》을 가진 과일나무로 일러왔다고 하시고는 그 의미를 풀이하시였다.

...감나무는 잎이 넓어 아이들의 굴세런습에 널리 쓰이

장군님께서는 현지도길에서도 민족의 향기가 가득차넘치도록 해주시였다. 량강방의 삼지연읍지구를 찾으시어 어느 한 국수집을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식기와집이 보기 좋다고, 청기와를 이어놓으니 더 멋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민족적인것을 장려해야 하며 다른 지방들에서도 조선식기와 집들을 많이 짓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민족적전통을 후세에 길

었다.

민족을 먹는 조선사람은 조선민요를 들어야 어깨가 올라간다는 그이의 말씀에도, 계몽기가오나 봉산탈춤과 같은 고유한 노래선물, 춤가락에도 조국과 민족에 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사랑의 세계가 비쳐여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력사학자는 《이 사회에서는 모든 생활이 미국식, 일본식, 서양식이다. 자기것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묻쳐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나 이 제 리 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하산 맨넬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단결된 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단결한 인민은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열렬한 애국주의정신과 무

한한 헌신성을 지닌 슬기로운 인민이기에 오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것이다.

조선인민의 투쟁성과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단결하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혼연일체는 조선의 위력한 힘의 원천

는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 단장 하리 운도로드라프라는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드센 담력과 배짱으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의 국력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

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였다.

방문을 통하여 조선식사회주의의 불배성의 요인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양드레 로헤엘레 팔론다는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열의에 충만되어있다고 하

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위인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조선인민은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가는 군대와 인민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깊이 느끼군 한다.

일심단결의 힘과 선군의 위력이 있기에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조선을 감히 어찌지 못하고있다.

최후승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숭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평양의 동정양지구에 있는 문수물놀이장이 화려하게 건설된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있다.

하지만 물놀이장의 규모나 다름다양한 시설들을 수자로 계산해보는 사람들은 있을수 있어도 그 형성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지난해 9월 어느날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뜻밖의 화제를 꺼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며칠전까지 본 물놀이장의 형성안이 109건이였는데 오늘 4건을 또 보아주었으니 113건이라고 하시는데였다.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113건이라니? 어느새 벌써?...

그 하나하나의 형성안을 직접 만든 설계가들조차 생해보

113건의 형성안

지 못한 수자였다.

그이께서 물놀이장 첫 형성안을 보신 때부터 《열, 열, 열...》하고 형성안의 면호를 세어본 설계가들도 매일같이 그이의 지도를 받으며 만들어나니 어느때 백을 넘고 열을 더 넘어섰는지 기억하지 못하고있었다.

한생을 설계로 보내는 전문가들도 하나의 건설대상을 놓고 이처럼 많은 형성안을 만들어보기는 처음이었다. 한밤중에도 이른새벽에도, 휴식일에도 명절날에도 그이께서는 물놀이장의 형성안을 지도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형성안에 만족이 없으시였고 번마다 새로운 착상을 더 넣어주곤 하시였다. 때없이 건설장을 찾으시어 돌아보시고는 또 형성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이르곤 하시였다. 그렇게 지도하신 형성안이 113건이었다.

물론 형성안작성은 물놀이장건설의 첫 공정이였을 뿐이었다. 그 다음은 설계

도면작성, 예산타산 그리고 시공...

그 모든것을 원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보시고 지도하시였다.

삼복의 찌물쭈는 무더위속에서도, 인민들이 단잠이든 때에도 건설장을 찾으신다고 때로는 건설장에서 동터오는 새벽을 맞기도 하시였다.

사람들은 신문, 방송을 통하여 알려진 원수님의 물놀이장건설장 현지지도가 5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을 놓고도, 9월에는 며칠사이에 두차례나 찾으신 소식을 두드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지난해 10월 15일, 문수물놀이장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사람들은 문수물놀이장건설에 기울으신 원수님의 로고를 생각하며 그이께서 참석하셧기라고 생각하고있었지만 그러나 그날 준공예트를 끊은것은 평범한 인민들이였다.

본사기자



북에 대한 생각

집단주의생명관에 대한 레를 들어보자.

박영숙이라는 처녀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했고 장래가 양양한데 그녀는 공장의 방송원을 택했다. 공장의 근로자들과 생산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날 집으로 가던 길에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4살난 소녀애가 7살난 언니를 데리고 울고있었다. 엄마가 안겨서 울고있었다.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마저 불치의 병으로 누워있었다. 영숙이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가 여기 있다, 울지 말아 하면서

다. 이런것을 모르면 북을 리해할수 없다.

반신불수된 상이군인(영예군인)과 결혼해 남편 김시권을 시인으로 명성을 높이게 한 참사관. 안해인 권순희녀인은 말했다.

사랑은 주는것이지 받는것이 아니다, 나는 한번도 후회해본적이 없다. 이 사람 만 단것 오히려 내쪽에서 행복하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게 돈도, 명예도 아니고 문학이 되고 개달았다.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넘치는 사랑속에 산다.

인간사랑의 자대가 되는 이야기다. 세계 어느 사회에서도 볼수 없는 신기로운 《신화》들인것이다.

선우학원 (재미동포)